2014 년도

교육행정 운영방침

이치카와시 교육위원회

오늘, 2014 년 2 월 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신년도의 교육행정의 운영에 임하는 소신의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머리

교육위원회는 2006 년의 교육기본법 개정을 토대로 하여 2009 년 3 월에 이치카와시 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입각하여 2009 년도부터 이번 연도까지 5 년간에 걸쳐 이치카와시의 실정에 맞춘 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진행되었고,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으로 사회정세는 급속한 변화를 이루었고,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학력저하와 집단 따돌림, 체벌 등의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정책교육은 부단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책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신년도부터 2018 년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 2 기 이치카와시 진흥교육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바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미래로 이어주는 이치카와의 교육”을 기본이념으로 그 구현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교육행정운영의 방침기본

동일본 대지진은 생명, 재산 등을 한꺼번에 앗아 갔으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슬픔,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와 사람들의 강한 “유대감”의 힘에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장점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계승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달았으며, 지금까지 해 온 “모두를 이어가는 교육”에 대해 더욱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의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침기본의 첫 번째는 아동 및 학생의 학습환경 확충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학력과 체력의 향상을 꼽겠습니다. 장래의 예측이 힘든 현재의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 강인함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어린이들의 학력과 향상체력이 불가결함에 따라 개개인의 실태에 맞춘

세심한 대응을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안심이 확보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교시설, 방범, 교통안전, 집단 따돌림 등 안전과 안심에 관한 사항은 다양하며 그 모든 것에 적절히 대응해 가고자 합니다.

방침기본의 두 번째는 가정, 학교, 지역, 행정의 연계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 행정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연계 및 협력하여 폭넓은 교육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교육가정학급, 커뮤니티 클럽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따라 연계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지만 새로운 연계방식도 확충해 가고 싶습니다.

방침기본 세 번째는 학습평생의 추진입니다.
21 세기는 “지식의 순환형 사회”라고 불리고 있으며, 개인 각자가 평생에 걸쳐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개성 및 능력을 꽃 피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성숙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교육사회의 확충을 도모하는 등 누구나가 일생을 통해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학습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미래로 이어주는 이치카와의 교육” 실현을 위해(중요한 시책)

방침기본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신년도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신년도부터 시작되는 제 2 기 이치카와시 기본계획진흥교육에 정한 기본적 방향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어린이들의 모습
먼저 어린이들의 육성에 관해서입니다.
사회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력과 체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따라 전국 혹은 이치카와시의 학력 및 학습 상황조사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사고력과 판단력 및 표현력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키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퇴직교원과 대학생, 지역인재를 활용하여 방과후와 장기휴업 중에 아동과 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교내학원 및 학습클럽”을 신설하겠습니다.

또, 향상체력에 대해서는 이치카와시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헬씨스쿨 추진사업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체육수업의 확충과 휴식시간에는 밖에서 놀도록 하는 것 외에도 지역의 스포츠 지도자와 대학과의 제휴 등에 따라 어린이들이 운동과 스포츠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2)가정, 학교, 지역의 모습

다음은 가정, 학교, 지역, 행정의 연계에 대해서 입니다.

이치카와시가 진행하는 교육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 각각이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이 그 운영을 지원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가정학급과 학교지원 코디네이터의 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 학교의 교육력 향상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지도력 향상은 물론이며 학교 간의 연계추진, 교직원이 어린이와 서로 마주하는 시간의 확대, 지역인재의 활용 등 많은 요소가 포함되지만, 신년도는 특히 학교 간의 연계로 시오하마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초중 일관학교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관학교의 모델학교로 2015 년도의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의 재편성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아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단절되지 않고 일관적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중고일관교육의 추진방책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3)이치카와의 교육의 모습

끝으로 환경교육의 정비를 도모하고 이치카와시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건물 등의 내진수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바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성이 정한 내진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신년도는 코쿠분 초등학교 및 제 4 중학교의 건물동 재건축 공사를 완성시키는 등 2015 년도까지 모든 학교에 대해 보다 안전성이 높은 문부과학성이 정한 내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학교건물 등 본체구조부의 내진보강공사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재료와 조명기구 등 비구조 부재에 대해서도 조사 및 설계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또,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춘 “학교 집단 따돌림 방지방침기본”을 책정함과 동시에 중대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 등을 맡을 조직을 설치하는 등 대응의 강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지원 실천강좌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집단 따돌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평생에 대해서는 시민 각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지속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서 살릴 수 있는 환경학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제 4 차 이치카와시 학습평생 추진계획”을 책정해 가겠습니다. 또, 공민관과 도서관, 박물관 등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해 환경 및 제도면에서 충실한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상을 신년도의 중요한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맺음말

근래 오츠시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문제를 계기로 교육위원회제도를 비롯한 여러 과제에 대해 개혁교육의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래 지방교육행정을 맡는 입장인 각 교육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편 이치카와시는 교육지역력의 활용과 도서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선진적 시책을 실시하고 수준 높은 이치카와 교육의 진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감안하여 이번 논의개혁교육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흐름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학력과 교육위원회 제도개혁과 같은 중요한 과제교육에 대해 공격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학습을 지속해 가고, 그 성과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학습평생의 구축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각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을 신년도의 교육행정 운영방침으로 하겠습니다.